

책으로 세상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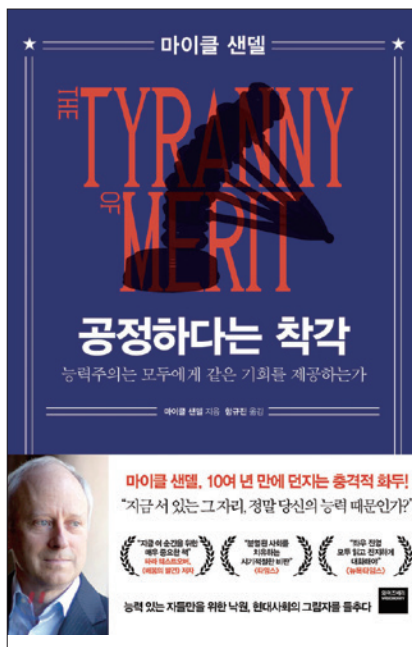
능력대로 성공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능력주의의 역설 「공정하다는 착각」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최근 한 언론에서 국내 청년의 4.7%가 ‘은둔 청년’이라고 보도했다. 대략 51만여 명에 해당한다. 은둔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집안에 스스로 틀어박힌 청년들을 일컫는다. 이들 중 30% 이상은 은둔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둔 청년은 우울증까지 같이 겪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은둔 청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포기한 청년들 / Pixabay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 YES24

무엇이 청년들을 집안에 가뒀을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회 구조는 단지 ‘청년 취업난’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전부터 전 인류의 사고방식을 규정해온 어떤 ‘담론’이 만들어낸 빙산의 일각 중 하나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이를 ‘능력주의’라고 칭한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내고 능력주의가 사회에 미치고 있는 해악을 비판했다. ‘모두가 공정한 경쟁으로 성공할 기회를 얻는다’는 현대사회의 금과옥조를 깨부수고 사회가 공동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줄거리 - 능력주의는 왜 정의롭지 않은가

저자는 능력주의에 관한 상징적인 사건



SAT는 미국의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 한국일보

으로 미국의 대학 입시 부정을 소개한다. 다수의 명문대 입학생이 SAT(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스캔들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입시생들이 저지른 불공정한 행태가 문제이나, 저자는 그들이 그런 부정을 행한 근본적 ‘동기’에 주목한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 대학 학위는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대표적 수단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과 명예로 직결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학(교육)을 사회적 상승의 원천이라고 자부한다. 달리 표현하면 오직 능력주의만이 계층과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저자는 현재 정치 엘리트들이 내뱉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지난 20세기 능력주의 담론이 정치에 도입된 이래 오히려 부자와 빈자 간에 경제적 격차가 심화하였고, 사회적 이동성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능력주의 자체도 도덕

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한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패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도태됐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때 승자는 오만함, 패자는 좌절과 굴욕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저자는 근대 유럽의 ‘청교도 윤리’에 주목했다. 당시 청교도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구원의 증표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

해서 벌어들인 부를 도덕적으로 선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능력에 따른 권력의 분배가 정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현재 미국 정치인이 능력주의를 ‘역사의 옳은 방향’이라고 외치는 것도 청교도적 믿음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사회적 상승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외면한 채, 서민층에게 그저 개인의 책임만 강조해왔다는 데 있다. 또한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기술관료적 전문가 정치만 일삼으면서,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능력주의라는 신화를 깨기 위해 ‘운’의 요소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나의 성공과 명예는 온전히 내 능력으로 달성한 게 아니라 타인, 사회 기반, 재능의 우연성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결부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명문대 입학생을 추천으로 선발하자는 과감한 제도로 제안한다. 운에 의해 대학에 진학할 때, 학생들은 경쟁의 압박과 승자독식 논리에서 벗어나 지적인 탐구라는



청교도들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본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이 겪는 굴욕과 좌절이다. 이들은 승자로부터, 사회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인간 취급을 당한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나눈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일의 존엄성’ 회복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능력주의’라는 강고한 장벽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능력주의와 함께 사라진 배려와 연대

‘모든 사람은 공평한 기회를 바탕으로 자기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의 기본 전제는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현대사회의 진리였다. 그러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가 가진 비정한 단면들을 조명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으나, 그가 능력주의를 바라본 핵심은 더 본질적이고 철학적이다. 경쟁의 승자는 오만하고, 패자는 분노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자와 빈자 간에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원인이며, 정치 과정에서 서민과 노동자를 배제하는 반민주주의의 기제였다. 평소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을 지향하는 샌델에게 능력주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저자가 능력주의를 공동체주의와 연관 지은 대목은 상당히 흥미롭다. 대개 현대



저자는 운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저자는 이 두 명을 대표적인 능력주의 엘리트로 지목한다

사회에서 공동체주의가 약화한 원인을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조의 확산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자는 능력주의라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다. 능력주의 체제에서 승자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패자는 패자 스스로마저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승자는 자연히 패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멸시한다. 저자는 20세기 중반 미국 복지논쟁에서 ‘개인 책임론’이 대두된 것도 능력주의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연대 의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 과정에서 도덕성, 이념, 가치 논쟁이 사라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역시 능력주의가 전문직의 기술관료적 능력만 중시하면서, 시민들을 정치 논쟁에서 배제한 결과다. 그 사례로 오바마의 ‘스마트’ 및 정보중심주의적 정치관을 든다. 모든 갈등과 문제는 ‘스마트’한 전문가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나선 후보자들이 하나 같이 하는 주장은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념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의 경제 전문가적 역량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논쟁은 소외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저자가 지적한 부분은 합당하다. 그런데 필자는 저자와 달리 지금의 정치 문화를 약간 다르게 바라보고 싶다. 단순한 기술관료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의 대두다. 갈수록 과거의 이념 논쟁은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적 역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안철수처럼 아예 국정 철학을 실용주의로 내세운 정치인도 있다. 저자가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이 책은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쓰였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만큼 강한 능력주의가 작용하는 사회로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 많다. 그중 하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다. 평생을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얘기다. 저자는 미국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1년 이내 자살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예로 든다. 충격적일 만큼 높은 수치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했던 한국의 ‘은둔 청년’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

이다. 성공하지 않으면 패배자로 낙인찍힌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아예 사회와 단절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고통은 패자뿐 아니라 승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인상 깊은 구절 하나를 던진다. “능력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승리자다. 그러나 상처 입은 승리자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저자는 무너져 있는
패자들의 존엄,
특히 일의 존엄을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저자는 능력주의적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운의 개입’을 제시했다. 승자가 내 성공이 운 덕분이라고 인식할 때 한층 겸손해지고, 패자 역시 덜 좌절하게 된다는 논리다. 이로써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체적 연대 의식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내놓은 ‘대입 추천제’는 꽤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운의 요소가 정말 능력주의적 불만을 완화할지 의문이 든다. 과거 신분제 사회는 오로지 태생적 ‘운’으로만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였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귀족과 부자들의 멸시를 참지 못한 민중들의 분노로 결국 신분제는 타파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능력주의’ 사회가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따라서 운으로 명문대를 들어간 학생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능력주의 시대일 때보다는 나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결국, 책의 모든 논의의 끝에서 저자가 강조한 것은 ‘공화주의’ 정신이었다. 그가 보기에 능력주의로 인한 갖가지 폐해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공동체의 파괴’였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저자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패자를 철저히 무시



능력주의는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준다 / Pixabay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를 비롯한 구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었다

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 그로 인해 공동체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무너져 있는 패자들의 존엄, 특히 일의 존엄을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이 공동선을 위해 기여하는 일인지,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즉 공화주의 정신만이 능력주의가 고착화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책을 읽으며 지속해서 떠올린 질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능력주의는 정말 부정의한가?’, 다른 하나는 ‘능력주의가 부정의하다면 이를 대체할 답론은 무엇인가?’였다. 우선 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훌륭하게 지적해주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후자의 대안 제시는 조금 아쉬웠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공화주의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답론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에 가깝다. 승자와 패자 모두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양자가 동등해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필자가 보기에 그 방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저자가 일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시한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능력주의를 타파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윤의 개입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한계점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저자가 과연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인지, 또 능력주의를 아예 타파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부터 능력주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그런데 국내 정치에서 마치 보수는 ‘능력주의’, 진보는 ‘반능력주의’인 것처럼 비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샌델이 말한 것처럼 능력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이미 능력주의는 현대인의 사고에서 명제처럼 굳어졌다.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진 역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샌델은 이에 강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가치가 있다. 나의 성공은 누군가의 실패라는 아픔을 발판 삼아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다. 📖



모두가 함께하는 공화주의